

전북대, 여성기업인 경영 혁신 지원

IT·제조·서비스 등 공통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융합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전북대가 도내 여성기업 경영 혁신을 돕는다.

전북대 LINC사업단과 전북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전북지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학협력회의를 열고 여성기업인들의 경영 융합 혁신에 마음을 모으기로 했다.

여성기업인들의 경영 융합혁신은 개별기업이 추진하는 사업들 가운데 IT와 제조, 서비스 등을 공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경영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대 LINC사업단은 승강기와 CCTV, LED 등의 제조와 가공과정 등을 인식하거나 원격제어 하는 등의 융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도영 여성총 전북지회장은 "개별 회원 기업 입장에서는 신기술 개발이 어렵는데 융합혁신을 통해 가능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대 LINC사업단은 지역중소기업으로서 겪고 있는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판촉과 유통, 수주 등 전 과정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PPT제작과 동영상 편집과 디자인 등 새로운 PR기법도 전수할



더위 잡는 물보라 전국 낮 최고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인 27일 오후 한 젊은이가 한강에서 웨이크보드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예정이다. 케팅 전문가를 초빙해 여성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고민형기자

전주시, 다양한 교육도시 프로젝트 추진

행복교육도시 조성위해 우수 미래인재 양성·교육환경 조성 등 4개 사업

전주시가 품격 높은 전주 시민 육성을 위해 향후 백년을 내다본 다양한 교육정책들을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시는 지역 인재 유출 등 지방교육의 현실을 해결하고, 건강한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도시 성장 원동력을 확보를 위해 '전주시 교육도시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도시 프로젝트는 일선 학교와 행정, 교육청, 학부모 등 지역사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전주교육공동체'를 이뤄내 품격 있는 행복교육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변화를 이끄는 우수 미래인재 양성 △일상이 배움터가 되는 학교 밖 학교 △배움이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함께하는 교육도시 만들기 등 4개의 추진 목표와 각 목표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회의'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으로 높아진 지역과 학교의 연계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해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생활과학교실은 기존 초등학교 대상에서 중학생까지 확대 운영하고, 전주 지역의 교육자원을 발굴해 방과 후 교육처로 제공하는 온고를 배움터와 전주의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교육과정과 연계해주는 다음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 민선식 기획조정국장은 "교육 혁신이 지역 복지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교육이 더 이상 학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이 학교가 되고 학교가 지역과 연계해 지역 자긍심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어 페스티벌 개최, 전주 혁신교육특구 사업, 열린교육 바꾸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학생들이 배움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청소년들이 '놀 권리' 회복을 통해 창의력과 자기주도력을 갖춘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을 발굴, 전주민의 독창적인 놀이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놀이 연구가와 시인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사업의 대상과 운영 형태 등을 정하고, 관내 청소년 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세부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청소년들의 여론 수렴을 위해 이달부터

전주시 민선식 기획조정국장은 "교육 혁신이 지역 복지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교육이 더 이상 학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이 학교가 되고 학교가 지역과 연계해 지역 자긍심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김승환 교육감,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마침내 승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결국 승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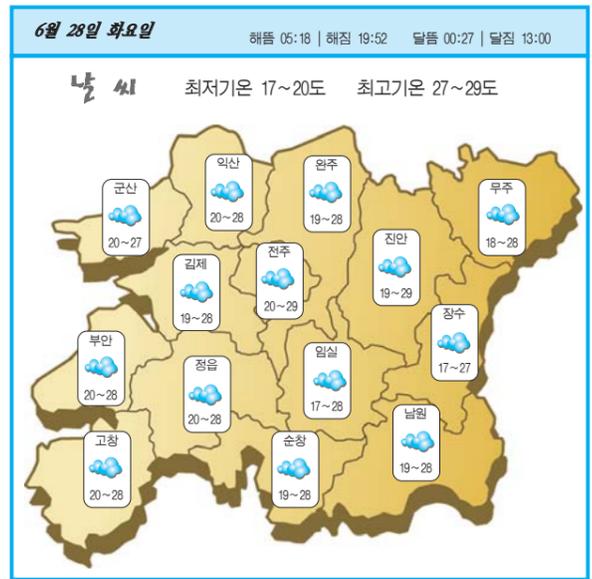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김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면직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고, 최종 인사권자인 김 교육감이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 교육감의 직권면직 승인으로 노병섭 전교조 사무처장과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등 2명이 면직처리됐다.

또한 사립학교인 전주 신흥고는 이사회를 열고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북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공·사립학교 교원 3명이 모두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김승환 교육감, GMO 학교 급식재료 사용 금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을 금지했다.

김 교육감은 2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아이들이 GMO 식품을 먹게 해선 안된다"며 "학교 급식에 GMO 식재료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일부 나라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인간의 먹을거리 문제 해결책으로 GMO를 찬양하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인간의 먹을거리를 자원의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우리 전북에서도 GMO 논란이 뜨겁다"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식탁에 GMO를 재료로 하는 식재료가 올라오게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민형기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작물과 가축 등 170여종의 GM 작물을 연구하고 있으며, 전주와 완주 이서지역에서 GM 벼를 시험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은 "GMO 문제로 인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신뢰성, 그리고 국가경쟁력에도 상당히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결코 GMO 식품을 먹어서는 안된다"며 "도내 단위학교는 한 곳도 예외 없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GMO를 막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형기자

전북대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캠프 개최

전북대학교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시가 ICT분야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2016년 스마트 디바이스 아이디어 캠프'를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전북대 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ICT 창작 및 아이디어 사업과 교육 등을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캠프 참가자들은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를 구성하기

위한 센서 활용부터 네트워크까지 시제품 제작 과정을 통해 센서의 의미를 익히고, 창업 사업과 교육과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최신 기술 트렌드부터 창업 시뮬레이션까지 기술창업의 모델을 개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북대는 이를 계기로 단발성 아이디어 캠프가 아닌, 우수한 아이디어 선발을 통해 청년 창업가 양성을 위해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 및 스마트 디바이스톤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민형기자

